제6차 수출전략회의
❷호 안건
(공개)

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범부처 비상수출 대책

2025. 2. 18.

관 계 부 처 합 동

범부처 비상수출 대책(요약)

Ⅰ '25년 수출 도전과제 및 주요 이슈

◇ '24년은 **역대 1위 수출실적** 및 **무역수지 흑자** 동시 달성

* (수출) 6,837억불, (무역수지) 516억불, (글로벌 순위) 8위→6위로 상승

◇ '25년은 ① 美 **신정부 출범**, ② **고금리·환변동 지속**, ③ **첨단산업 경쟁과열·공급과잉** 등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전망

1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등 수출 리스크 확대

○ (현황) 美 **신정부 관세 조치**로 인한 **글로벌 관세 전쟁** 본격화 우려

○ (영향) ①對美 **수출 직접영향**, ②경쟁국 '밀어내기'로 **제3시장 경쟁심화**

- 기업들은 **국내생산, 제3국 공장이전** 등 **투자계획 변경 가능성**

2 고금리 · 환변동, 지정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요건

○ (현황) **고금리·환율 불확실성** 지속, **해상운임 변동성** 高

○ (영향) 우리 수출기업 **자금 유동 경색** 및 **가격 경쟁력 악화** 우려

3 첨단산업 경쟁과열,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심화

○ (현황) 딥시크 등 **첨단산업 기술격차 축소**, 글로벌 **저가 과잉공급** 지속

○ (영향) 수출 **주력품목 점유율 하락**, **공급과잉 여타산업 확산** 우려

4 특히 올해는 상반기 여건 악화로 '상저하고' 수출 전망

○ (현황) 주력품목 **가격 하락***, 주요시장 **수입수요**** 감소 우려

* IT 제품수요 둔화,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, OPEC+감산 종료('25.2Q) 등에 따른 유가 약세 예상

** 美 자동차 재고 증가로 인한 수요 둔화 및 현지생산 확대, 전기차 캐즘, 제조·건설시장 위축 등

○ (영향) 상반기 **주력품목**(반도체·자동차·석화·기계 등) **수출은 특히 어려울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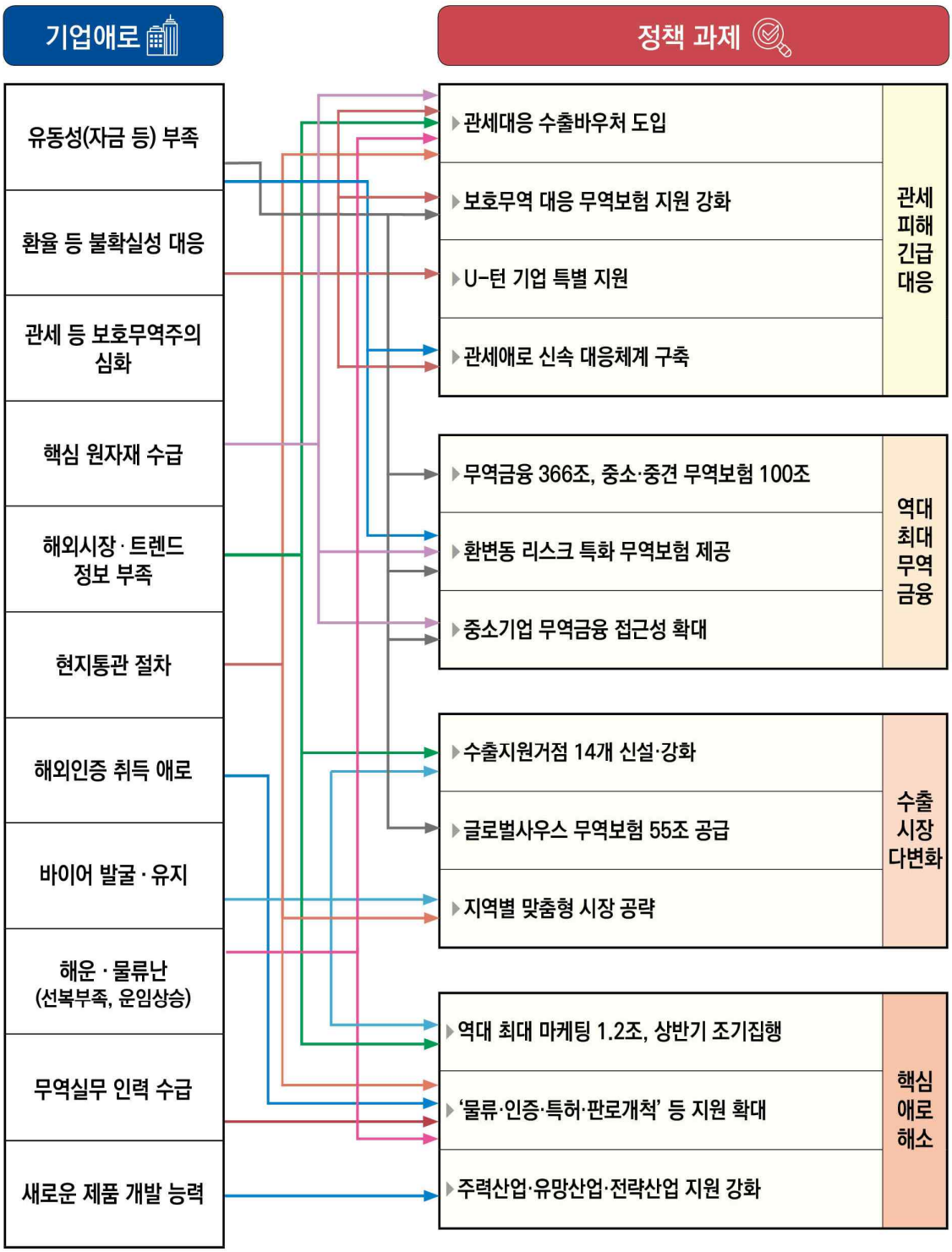
◈ 25.상반기는 **비상상황 극복, 수출상승모멘텀 유지** 위한 마지막 **골든타임**

Ⅱ 추진방향

목표	**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추진** **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, 상반기 위기 극복**
여건·방향	◈ 美신정부 출범 → 관세 피해 우려기업 애로 선제적 해소 ◈ 고금리·환변동 → 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역대급 금융지원 ◈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→ 글로벌사우스 중심 시장다변화 ◈ 업종별 수출 애로 → 기능별·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

세부 과제		
	관세 피해 긴급 대응 〈관세대응 패키지〉	❶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지원 ❷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지원 강화 ❸ U-턴 기업 특별 지원 ❹ 관세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
	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〈무역금융 패키지〉	❶ 무역금융 366조,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 ❷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보험 제공 ❸ 중소기업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
	글로벌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〈대체시장 진출패키지〉	❶ 수출지원거점 14개 신설·강화 ❷ 글로벌사우스 무역보험 55조 공급 ❸ 지역별 맞춤형 시장 공략
	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	❶ 역대 최대 마케팅 1.2조, 상반기 조기집행 ❷ '물류·인증·특허·판로개척' 등 지원 확대 ❸ 주력산업·유망산업·전략산업 지원 강화

< 참고 : 수출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 >



< 수출기업 정책지원 필요사항 설문조사 결과(무협, 342개사 대상, '25.2월) >

정책금융 지원 확대(56%),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(48%), 선복확보 및 물류비 지원(36%), 해외인증 절차 간소화·비용지원(21%), 해외 수입 공급선 발굴(21%), 투자촉진·R&D 등(15%) 順

Ⅲ 세부 추진과제

1 관세피해 긴급대응 (관세대응 패키지)

1 관세피해 기업 수출바우처 지원

○ (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)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**현지 로펌·컨설팅사**와 **관세 피해분석·대응, 대체시장 발굴**까지 패키지 지원

○ (피해기업 우선지원) 美 **관세피해 발생**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**우선 지원**

2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대폭 강화

○ (피해기업 보험우대) 피해발생 기업 대상 **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**, 피해 **중소·중견**기업 대상으로는 상반기까지 **단기수출보험료 60% 할인**

* 피해 기업 대상 신속 보상(심사기간 2→1주)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(2→1개월)

○ (해외투자 자금지원) 관세 대응 **해외 생산시설 이전** 기업 대상 해외 **투자자금 대출 무보 보증 지원**('25년 2조원), **대기업 동반진출 협력업체** 해외투자 및 제작자금 **우대 보증**('25년 2천억원)

3 관세피해 U-턴 기업 특별지원

○ (세제 지원) 관세피해로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경우 **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**에도 국내 복귀시 **법인세·소득세·관세 감면 확대**

* (현행) 해외사업 축소(매출액 25% 이상 감축) 완료 후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

○ (보조금) 피해기업 U-턴시 **'26년까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**(청산·양도·축소)을 **면제**하고 **보조금 지원비율**도 **10%p 가산**

* 현행 지원비율 : (일반업종) 21%, (우대업종) 23%, (공급망업종) 44%, (첨단업종) 45%

- 2개사 이상 **동반복귀시 보조금 가산** 현재 5%p → 변경 **10%p** 확대

4 신속 대응체계 구축

○ (통합상담창구) 우리기업의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, 피해 가능성 상담 원스톱 창구로 Kotra 內 '**관세대응 119**(☎1600-7119)' 신설

○ (전문상담) **원산지 → FTA 종합지원센터, 수입규제 → 통상법무지원팀**(신설, 무역협회), **U-턴 → 해외무역관 헬프데스크** 통해 상담 지원

○ (경제사절단) 무역업계 대변 위한 **對美 릴레이 경제사절단** 파견

* (2월) 대한상의, (3월) 한경협, (5월) 무역협회, KOTRA

2 역대 최대 무역금융지원 (무역금융 패키지)

1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, 중소 · 중견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

○ (**보험·보증료 파격 할인**) 중소·중견 무역보험 보험·보증료 50% 일괄 할인, 수출 **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3.5만개사에는 보험료 90% 특별 할인**(~'25.6)

○ (**中企 특례지원**) 과거 수출실적 대신 **미래 성장성 심사** 통해 지원, 기업당 **대출보증 최대한도 2배 상향, 지원 분야 확대***('25.3~)

* 기존제작자금,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→ 추가원자재 수입자금, 시설자금 등

2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보험 8.5조원으로 대폭 확대

○ (**수입보험**) **핵심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**으로 대폭 확대, **지원대상 확대**(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), **보증한도 2배 상향**(~'25.6)

○ (**환변동보험**) 환변동 리스크 헷지 위해 **3조원 규모**로 **2배 확대**('24년 1.5조원), **한도 1.5배 우대 및 보험료 30%** 할인(~'25.6)

- **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*도 신설**하여 기업 편의성 대폭 강화

* (기본형) 환변동 이익금 무보 납부 → (옵션형) 보험가입시 이익금 납부 면제 옵션 선택

○ (**자금지원**)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에 **1.5조원 정책자금**(자금·보증) 지원

3 중소기업 · 협력사 등 무역금융 접근성 강화

○ (**은행권 협업**) **5대 시중은행·4대 지방은행·3대 인터넷은행** 협력상품 신설·확대 통해 **중소·중견, 지방기업, 소상공인** 무역금융 사각지대 해소

* (5대 시중은행) 중소중견 제작자금, 수출채권 조기현금화, 수입자금 지원 확대 (1조→2조)
* (4대 지방은행) 지역기업 대상 수출품 제작자금 확보상품 신설(1,500억원)
* (3대 인터넷은행) 소상공인 대상 구매자금 특별 대출·보증 프로그램 신설(2,000억원)

○ (**대기업 협업**) (무보) 대기업 특별출연을 통해 **협력사 제작자금 대출 우대**하는 **'수출공급망보증' 상품 신설** (보증한도 2배 상향, 보증료율 1→0.65% 인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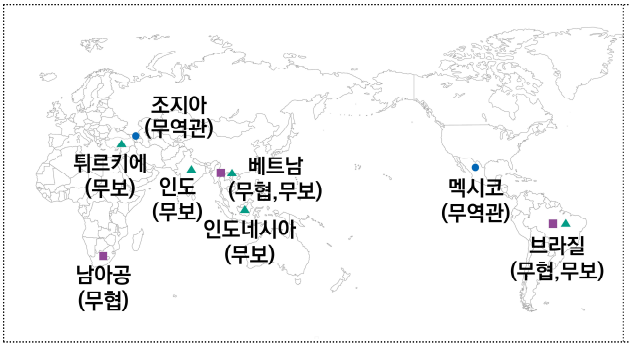
- (수은)3조원 규모 상생금융 통해 **수출기업 납품사 대상 금리 우대**(최대 0.5%p)

3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(대체시장 진출패키지)

1 수출지원기관 14개 해외거점 신설 · 기능 강화

○ (글로벌 사우스 거점)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 위해 수출지원기관(KOTRA, 무협, 무보) **해외거점 14개소 신설·기능 강화**(신설 5개, 기능강화 9개 검토)

<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기관 강화방안(안)>



<신설 : 5개>

○ (**KOTRA**) 멕시코, 조지아
○ (**무역협회**) 브라질, 남아공, 베트남

<기능 강화 : 9개(검토)>

○ (**KOTRA**) 기존 3개 무역관 이전 검토
○ (**무보***) 호치민, 하노이, 인도, 인니 등

* 旣 운영중인 해외지사 인력 재배치

2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55조원 공급

○ (한도·상한 확대) 우량수입자 대상 **보험한도 3배** 확대, 저신용 수입자 대상으로는 **보험한도 상한 상향**(20만불→50만불)

* 신규 바이어에 신용 조사 前 제공하는 잠정한도도 상한 증액(20→30만불)

○ (바이어 발굴) 해외바이어 **신용조사 서비스 50% 할인**(중소·중견, 10회)

○ (재건수요 대응) **우크라이나** 등 **수출계약**에 대해 중소·중견 대상 **한시적 수출보험 특별지원**(~'25.6월)

* (현행) 무역보험 인수제한국 지정 → (변경)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심사 통해 지원

4 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

1 역대 최대 마케팅 1.2조원 지원, 상반기 70% 이상 집행

○ (전시·상담회) 상반기 중 **역대 최대 144회**, 수출기업 8,000개사 지원

- 국내기업 신흥시장 **무역사절단 파견**규모도 **대폭 확대**(193→300개사)

○ (한류 활용) 카자흐스탄·캄보디아 등 한류 확산 지역 중심 **K-Pop 콘서트 연계 판촉·상담회** 개최

○ (30대 프로젝트 발굴) 반도체·AI, K-그리드, 바이오, 항공·방산 등 **전략 산업 거점무역관 선정, 프로젝트 발굴** 및 수출기업 매칭 지원

< 수출 프로젝트 및 지원(예시) >

❶ (바이오) 글로벌제약사 제품개발 협력수요 발굴, 핀포인트 상담, 현지인증 획득 지원
❷ (모빌리티) 글로벌 전기차 OEM 및 부품사 소싱 수요 포착, 방한초청 및 맞춤형 상담회 개최
❸ (K-그리드) 노후전력망 교체수요 대응, 데이터센터 확충 프로젝트 발굴, 선단형 사절단 파견

3 물류 · 인증 · 특허 · 판로개척 지원 확대

○ (물류) 유망시장 선박 부족 노선에 물류 경색시 **임시선박 투입, KOTRA 물류지원단**(국내) 및 **K-물류데스크**(해외) 등 전담조직 신설

○ (인증) 수출 중소기업 대상 **해외인증 획득비용** 지원('25년 153억원), '해외인증 119'를 통해 해외인증 신속 획득 위한 전주기 지원

○ (특허) **IP 분쟁요인 분석**부터 **위험요인 해소**까지 원스톱 지원(26.3억원)

○ (판로) 수출업무 대행 **전문무역상사 50개사 추가** 지정, **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**(1,000→1,600개사), **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5개소** 추가 신설

4 주력 · 유망 · 전략산업 지원 강화

○ (반도체) 보세공장과 **연구부서**간 시제품 등 **연구·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**

* 현재 공장과 연구부서간 제품이동이 빈번함에도 일일이 통관·세제환급 절차 반복 중

○ (조선) **한미 조선협력 패키지** 추진, **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심사**하는 **RG 발급제도 개선** 등 추진

○ (바이오)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공유오피스**(CIC*) 입주 지원**

* Cambridge Innovation Center : 글로벌 제약기업·투자회사 등 상시 교류 협력의 場

○ (식품) **수출전문단지 육성**, 對美 **비관세장벽 플랫폼** 운영

○ (콘텐츠) **수출이행·해외진출 자금대출 보증상품** 신설(150억원)

○ (방산) 항공 MRO 산업 육성 위해 **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**(~'25) **추진**

○ (해외건설·플랜트) **500억불**(플랜트 350억불 포함) **수주목표** 달성을 위해 수은(9조 대출), 무보(10조 보증), KIND(1.1조 정책펀드) 등 **총 20조원 지원**

목 차

Ⅰ. '24년 수출 성과 및 평가 ····· 1

Ⅱ. '25년 수출 도전과제 및 주요 이슈 ····· 2

Ⅲ. 추진방향 ····· 4

Ⅳ. 세부 추진과제 ····· 6

1. 관세피해 긴급대응 ····· 6

2. 역대 최대 무역금융지원 ····· 9

3.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····· 11

4. 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 ····· 14

Ⅴ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21

Ⅰ. '24년 수출 성과 및 평가

◇ '24년 역대 1위 수출실적 및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

* '22년 수출은 6,836억불(당시 역대 최대 실적), 무역수지는 478억불 적자 기록

□ '24년 수출은 8.1% 증가한 6,837억불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

○ 무역수지도 '18년(697억달러) 이후 최대규모인 516억불 흑자 기록

* 무역수지(억불) : ('18)697→('19)389→('20)449→('21)293→('22)△478→('23)△103→('24)**516**

○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,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'24년 연중 내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

□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(1,419억불),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700억불 달성

* 반도체 수출액(억불) : ('20)992 → ('21)1,280 → ('22)1,292 → ('23)986 → **('24)1,419**
* 자동차 수출액(억불) : ('20)374 → ('21)465 → ('22)541 → **('23)709 → ('24)708**

○ 유망 소비재인 K-푸드 역대 최대실적 경신, K-뷰티도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

* (농수산식품) 116.7억불(7.6%), (화장품) 102억불(20.6%)

□ 대중 수출은 6.6% 증가한 1,330억불로 '21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 전환, 대미 수출은 1,278억불로 역대 1위 실적 달성

* 대중 수출액 추이(억불) : ('20)1,326 → ('21)1,629 → ('22)1,558 → ('23)1,248 → ('24)1,330
* 대미 수출액 추이(억불) : ('20)741 → ('21)959 → ('22)1,098 → ('23)1,157 → ('24)1,278

◇ 수출강국 입지 강화,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

□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순위는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

○ 특히,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(9.6%, '24.1~9월)을 보이며 글로벌 수출강국으로 발돋움

* 수출 증감률(%) : 중국 5.7, 미국 2.7, 독일 0.4, 네덜란드 △3.0, 일본 △1.9, 이탈리아 △0.4, 프랑스△2.0, 멕시코 3.2, 캐나다 △0.3

□ '24년 GDP 성장률 2.0%p 중 수출이 90%(1.8%p) 기여

○ 글로벌 고금리·고물가, 러-우 전쟁, 중동사태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

* '24년 GDP 성장률·기여도(한은, %p) : **(GDP)2.0** / (소비)+0.9, (총자본형성)△0.7, **(순수출)1.8**
** 성장 기여율(성장기여도/GDP성장률, %) : ('21) 2.2 → ('22) △3.7 → ('23) 85.7 → **('24) 90.0**

◈ '24년에는 우리 수출이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

Ⅱ. '25년 수출 도전과제 및 주요 이슈

◈ ①美 신정부 출범, ②고금리·환변동 지속, ③첨단산업 경쟁과열·글로벌 공급과잉 등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전망

◇ 美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리스크 확대

□ (현황) 美 정부의 연이은 관세 예고·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

○ 멕시코·캐나다(기존 무관세)에 25%, 中에 10% 추가 관세 발표(2.1)

-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(10~15%) 및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

○ 철강 25% 관세에 대한 기존 예외 조치(쿼터 등) 일괄 폐지(2.10)

○ 상대국의 관세·비관세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 예고(2.13)

□ (영향) 관세전쟁 확전시 우리기업 수출에 영향 불가피

○ ①對美 수출 직접 영향, ②경쟁국 '밀어내기'로 제3시장 경쟁심화

○ 기업들은 국내생산, 제3국 공장이전 등 투자계획 변경 가능성

◇ 고금리·환변동, 지정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지속

□ (현황) 고금리*·환율 불확실성** 지속, 해상운임 변동성 高***

* 韓 美금리(%): ('21.1) 0.5, 0.25 → ('22.1) 1.25, 0.25 → ('23.1) 3.5, 4.5 → ('24.1) 3.5, 5.5 → ('25.1) 3.0, 4.5
** 환율(원/달러): ('21) 1,189 → ('22) 1,265 → ('23) 1,288 → ('24) 1,473 → ('25.2.3) 1,467
*** 상하이 운임지수: ('23)1,005p→('24)2,506p→('25.1)2,243p→('25.2.14)1,759p

○ ①원자재·중간재 수입비용 증가, ②해외 주요국의 투자·수요 위축, ③환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 전망

□ (영향) 우리 수출기업 자금 유동 경색 및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

○ 특히 중소기업은 고환율·고금리, 물류비 상승 등 대외 리스크 대응에 취약하여 피해 가중 우려

* 수출 중소기업 513개 중 22.2%가 '고환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'고 응답(중기중앙회), 중소기업은 환율 1% 상승시 손해 0.36% 증가, 환차손 비중은 영업이익의 25%(중기벤처연구원)

◇ 첨단산업 경쟁과열,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심화

□ (현황) 첨단산업 기술격차 축소, 글로벌 저가 과잉공급 지속

○ 딥시크(DeepSeek) 출시 등 중국과 선진국간 AI 기술격차 축소

○ 중국 내수부진 및 과잉생산능력으로 해외시장 저가 공세 지속*, 중국의 범용 반도체 공급 확대로 반도체 對中 수출 감소**

* 中 석유제품 수출 쿼터(백만t) : ('22) 37 → ('23) 39 → ('24) 41

** 메모리 반도체 대중 수출액(억불) : ('24.1Q)66.4 → (2Q)75.0 → (3Q)70.4 → **(4Q)67.8**

□ (영향) 수출 주력품목 점유율 하락, 공급과잉 여타산업 확산 우려

○ 반도체, AI 등 연관 첨단산업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

○ 철강·석유제품·유화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주요시장 경쟁 심화, 반도체·전기차 등 첨단산업으로의 공급과잉 확산 가능성

◇ 특히 올해는 상반기 여건 악화로 상저하고 수출 전망

□ (현황) 주력품목 가격하락, 주요시장 수입 수요 감소 우려

○ ①IT 제품 수요 둔화, ②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, ③OPEC+ 감산 종료('25.2Q~) 및 ④미국 親화석연료 정책 등에 따른 유가 약세 예상

* 유가 전망(EIA 25.1, 브렌트유, $/bbl) : ('24)80.6→('25.1Q)76.3→(2Q)75.0→(3Q)74.0→(4Q)72.0

○ ①美 자동차 재고 증가로 인한 수입 수요 둔화 및 현지 생산 확대(전기차, 年 10만대), ②EU 등 전기차 캐즘, ③제조·건설시장 위축 등 우려

□ (영향) 상반기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은 특히 어려울 전망

○ 단가·유가 하락에 따른 반도체·석유제품·유화 수출 감소 우려, 캐즘, 건설시장 위축으로 자동차·일반기계의 美·EU 수요 축소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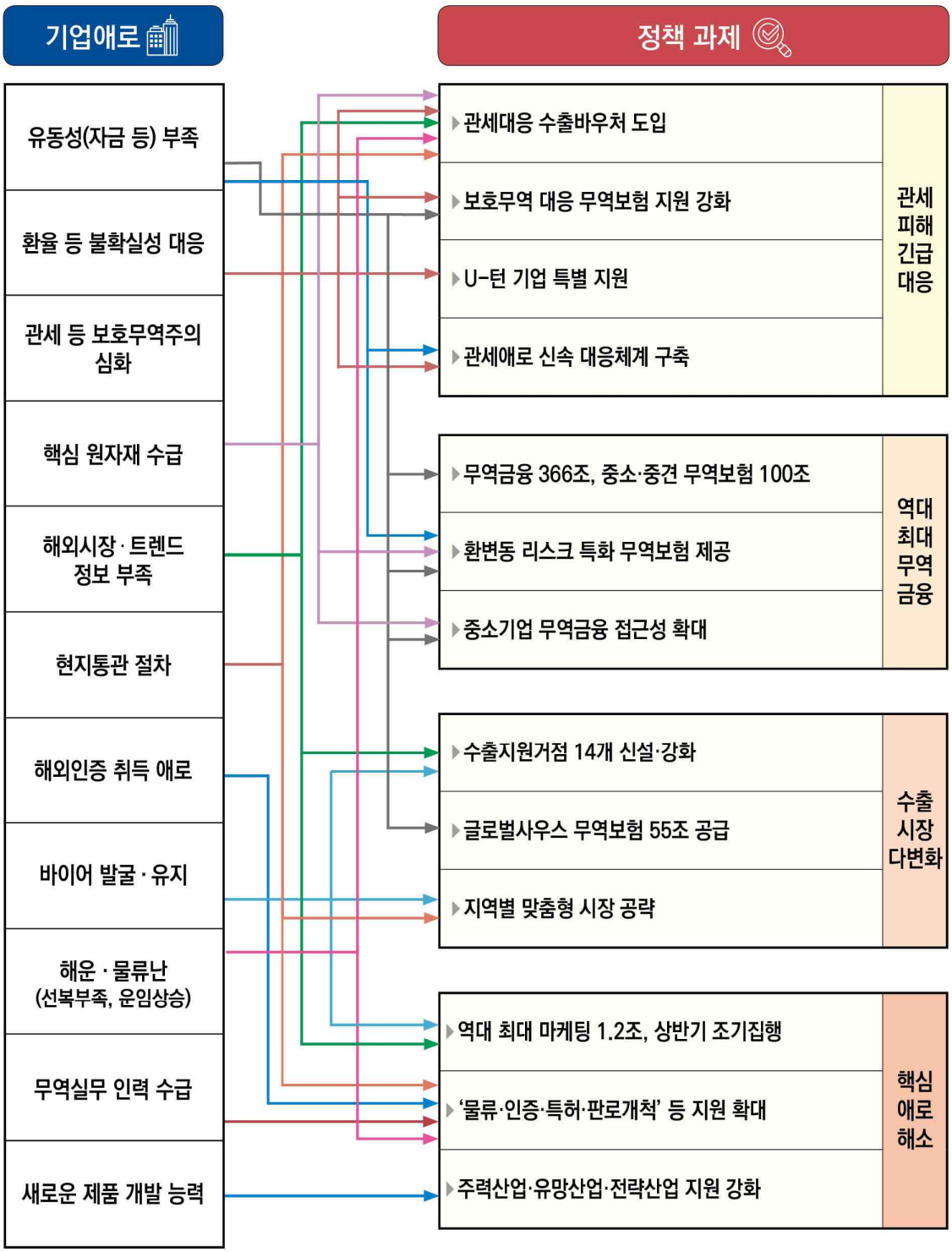
◈ '25년 상반기는 엄중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고,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

Ⅲ. 추진 방향

목표	**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추진** **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, 상반기 위기 극복**
여건 · 방향	◈ 美신정부 출범 → 관세 피해 우려기업 애로 선제적 해소 ◈ 고금리 · 환변동 → 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역대급 금융지원 ◈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→ 글로벌사우스 중심 시장다변화 ◈ 업종별 수출 애로 → 기능별·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

세부 과제		
	관세 피해 긴급 대응 〈관세대응 패키지〉	❶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지원 ❷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지원 강화 ❸ U-턴 기업 특별 지원 ❹ 관세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
	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〈무역금융 패키지〉	❶ 무역금융 366조,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 ❷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보험 제공 ❸ 중소기업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
	글로벌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〈대체시장 진출패키지〉	❶ 수출지원거점 14개 신설·강화 ❷ 글로벌사우스 무역보험 55조 공급 ❸ 지역별 맞춤형 시장 공략
	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	❶ 역대 최대 마케팅 1.2조, 상반기 조기집행 ❷ '물류·인증·특허·판로개척' 등 지원 확대 ❸ 주력산업·유망산업·전략산업 지원 강화

< 참고 : 수출기업 애로 및 정책과제 >



< 수출기업 정책지원 필요사항 설문조사 결과(무협, 342개사 대상, '25.2월) >

정책금융 지원 확대(56%),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(48%), 선복확보 및 물류비 지원(36%), 해외인증 절차 간소화·비용지원(21%), 해외 수입 공급선 발굴(21%), 투자촉진·R&D 등(15%) 順

Ⅳ. 세부 추진과제

1 관세피해 긴급대응

◇ 美 관세 및 주요국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발생 우려
⇒ 피해 우려기업 대상 컨설팅, 무역보험, U턴 지원 강화

1 관세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적극 활용

□ 美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'관세대응 수출바우처' 도입

< 美 신정부 관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>

① **참여기업의 68.7%가 美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피해 예상**
- ①제품 가격경쟁력 저하(74%), ②영향분석 애로(45%), ③원자재 조달애로(26%), ④현지투자·거래차질(20%)

② **참여기업의 78.7%가 기존 수출 바우처로는 관세 대응이 어렵다*고 응답**
- 사유: ①지원규모 부족(66%), ②지원 서비스 부족(26%)

③ **관세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는 주로 피해분석, 피해대응, 대체시장발굴을 응답**
- (**피해분석**) 관세, 법률 등 현지 전문가 컨설팅(26%)
- (**피해대응**) 유통+물류비 지원(71%), 중간재 조달처 다변화(18%)
- (**대체판로발굴**) 현지 마케팅(69%), 해외 인증(41%) 등

○ 美·멕·캐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(20개)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*와 ①피해분석, ②피해대응, ③대체시장 발굴 컨설팅 패키지 지원

*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, 현지 물류법인, 국내 시험인증기관 해외거점 등

❶ (피해분석) 관세 대상 여부·규모 판별과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

❷ (피해대응) ①중간재 조달 다변화 컨설팅, ②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물류·통관 지원, ③해외거점 이전·유턴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

❸ (대체시장) 신규 수출을 위한 시장 현황조사, 시장별 인증·규격 획득,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

< 관세대응 바우처 개요 >

	일반 바우처	관세대응 바우처
지원대상	· 일반 수출기업	· 美 무역분쟁 영향기업
지원내용	·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14대 서비스 자율 이용	· 관세대응을 위한 현지 로펌·관세법인 컨설팅, 물류·통관 지원, 중간재 조달처 변경 지원 등

□ 美 관세 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추진 중기부

○ 15개 수출지원센터 '애로신고센터' 등을 통해 발굴된 美 관세조치 피해(우려)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

2 보호무역 대응 무역보험 지원 강화

□ 美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수출보험 우대 제공

○ 美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**피해가 발생한 기업**(예: 가전, 자동차·부품, 이차전지 등) 대상으로 **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**

- 피해 발생 **중소·중견기업**의 경우 상반기까지 **단기수출보험료 60% 할인** 적용(~'25.6월)

○ 관세에 따른 **수출계약 취소·변경,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** 대상 **신속 보상 및 보험금 지급**

* △심사기간 2→1주로 단축, △보험금 지급 2→1개월로 단축(1개월 경과시 가지급)

□ 기업들의 美 관세 대응을 위한 해외투자 자금 지원 강화

○ 관세에 대응하여 **해외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투자** 기업에 대해 **해외투자자금 대출 무보 보증**('25년 2조원)

○ 대기업 **동반진출 중소·중견 대상**으로 **국내 시중은행**이 **해외투자 및 제작 자금을 대출**하는 경우 무보 **우대 보증**('25년 2,000억원)

* △(무보) 보증료 30% 할인, 보증비율 상향(95→100%), △(은행) 대출금리 할인(0.5%p) 등 우대

3 관세 피해 U-턴 기업 특별지원

□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[기재부]

○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**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**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**법인세·소득세·관세 감면 확대**

* (현행)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후 국내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
(확대)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 복귀 시 감면 적용

□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· 인센티브 확대

○ **(요건 완화)**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'26년까지 U-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**해외사업장 구조조정**(청산·양도·축소) 요건 **면제**

○ **(인센티브)**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국내복귀시 **'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비율 10%p 가산**

* 현행 지원비율 : (일반업종) 21%, (우대업종) 23%, (공급망업종) 44%, (첨단업종) 45%

- 2개社 이상 **동반복귀**시 **보조금 가산도** 현재 5%p → 변경 **10%p 확대**

4 관세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

□ **KOTRA 內 '관세대응 119(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)' 신설**(2월)

○ 관세피해 우려 기업이 **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, 피해 가능성, 美 정책 영향** 등 상담할 수 있는 **원스톱 상담창구**(Single Window) 구축

* (대표번호) 1600-7119, KOTRA 홈페이지 내 별도 상담창구 팝업 신설

○ 美 정부 **새로운 정책 발표시** KOTRA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* 게재, 유관업종 협·단체를 통해 **업계에 신속 전파**

* 美 정부 행정명령 발표·정책변화 관련 뉴스레터 및 이슈보고서 발간

□ **원산지 · 법률 · 행정절차 등 전문적 상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**(2월)

○ (국내) 보호무역주의 피해기업 **원산지 상담·수입규제 자문 지원**

- **원산지** 분야 **상담·컨설팅** 제공 (FTA통상종합지원센터, ☎1380)
- **수입규제** 피해기업 대상 **통상자문서비스**(절차, 대응전략 등) 제공 (무역협회 內 **'통상법무대응팀' 신설**, 2월)

○ (해외) 美·멕·캐 등 20개 무역관 **'헬프데스크' 구축·운영** (2월~)

*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 무역협회 해외지부(6개) 통해서도 현지 진출기업 애로 접수

- 현지 로펌·컨설팅 업체 등과 제휴하여 美 관세조치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상담, 정보제공, U-턴사업 연계 지원

□ **수출기업 대상 관세 등 美 정부정책 설명회 개최**

○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**종합적인 정보제공**을 위해 무역협회(3월), KOTRA(4월)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한 **전문가 설명회** 개최(매월)

□ **우리 무역업계 대변 위한 민-관 아웃리치 강화**

○ (정부) 장관급 訪美(2~3월) 등 美 **행정부·의회** 아웃리치 전개

○ (민간) 우리 무역업계 대변 위한 對美 **'릴레이 경제사절단'** 파견

* (2월) 대한상의 Korea-US Business Night 개최
(3월) 한국경제인협회 Korea-US Business Investment Reception 개최
(5월) 코트라 Korea-US Business Forum, 무역협회 Select USA 계기 사절단 파견

2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

◇ 고금리·환변동, 관세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 경영 불안정성 가중
⇒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한시적 지원 대폭 강화

1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, 중소중견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

□ '25년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 산업부 · 기재부 · 중기부 · 금융위

○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우리 기업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

□ 수출 중소 ·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파격 지원

○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(중소 60, 중견 40)

○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무보 보험료·보증료 일괄 50% 할인(~'25.6)

- 연간 수출 실적 100만불 이하 中企 3.5만개사에 대해서는 단기수출 보험료 90% 특별 할인(~'25.6)

○ 과거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 초보기업,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도 충분한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中企 특례지원* 강화**('25.3~)

* 특례제도 : 과거 수출·재무 실적 보다는 미래 성장성 심사를 통해 지원한도 책정

** △(지원자금 확대) 기존제작자금,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+ 원자재 수입자금, 시설자금 등 추가, △(기업별 대출보증 최대한도) 2배로 상향

2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8.5조원 공급

□ 원자재 수입 기업의 고환율 대응력 제고 지원

○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 지원('24년 2.9조원), 대상품목 확대*('25.2~) 및 보증한도 2배 일시 상향(~'25.6)

* (기존) 원유 등 주요자원 및 시설재 → (확대) 사치재 제외 모든 품목(소비재 포함)

○ 원자재 수입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 신설

* (기본형)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금을 무보에 납부
(옵션형) 기업이 환변동보험 가입시 이익금 납부 면제 옵션 선택 가능

□ **수출 중소 · 중견기업 환변동 리스크 헷지 지원 강화**

○ 환위험 관리를 위한 **환변동보험**을 **3조원 공급**하고('24년 1.5조원), **한시적**으로 **한도 우대**(1.5배), **보험료 할인**(30%) 지원(~'25.6)

○ **고환율 피해 수출·입 중소기업**에 **1.5조원** 정책자금(자금·보증) 지원 중기부

3 중소 · 중견, 소상공인, 협력사까지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

□ **은행권 협력 기반 수출 중소·중견, 지역기업, 소상공인 지원 확대**

○ (시중은행) **중소·중견** 대상 **제작자금, 수출채권 조기현금화, 수입자금**을 지원하는 '**수출패키지 우대보증**' 공급 **확대**(1조원→2조원)

* △하나·신한·국민·우리·기업·농협·부산은행(대출금리 최대 0.7%p 우대, 보증료 대납), △무보(보험·보증료 20% 할인, 보증·보험 한도 2배로 상향, 보증비율 90%→95% 상향)

○ (지방은행) **지역 수출기업**들의 수출품 **제작자금** 확보, **수출채권 조기현금화** 이용 접근성 강화 **프로그램 신설**('25.3~, 400 → 1,500억원)

* 부산·경남·광주·전북은행(수출자 대리 일괄 가입), 무보(제작자금 보증한도 1.5배 우대, 조기 현금화는 개별기업별 한도가 아닌 은행에 포괄한도 부여)

○ (인터넷은행) **수출 소상공인들**의 간편한 **구매자금** 확보를 위한 비대면·온라인 **대출·보증 프로그램 신설**('25.3~, '25년 2,000억원)

* 카카오·케이·토스뱅크(기업당 1억원 대출) - 무보(보증비율 90→100%로 우대) 협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전용상품 출시

□ **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·중견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신설**

○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되어온 **협력사** 대상 '**수출공급망보증**' **상품 신설**('25.5~, '25년 2,000억원)

- 자동차 대기업-무보 협업을 통해 협력사 **제작자금 대출 보증 우대**

* △대기업(특별출연 100억원), △무보(보증한도 2배로 상향, 보증료율 1%→0.65% 인하 등)

○ 대기업 앞 **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·중견기업**에 대해 **금리우대**(최대 0.5%p) **상생금융*** 지원('25년 3조원) 기재부

* 수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·중견기업 대한 금융우대

3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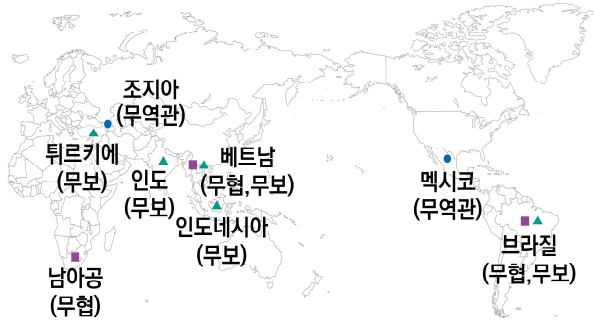
◇ 美·中 등 주요시장 **보호무역주의에 대응,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** 필요
⇒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**적극적 판로개척** 지원

1 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거점 신설 · 강화

□ **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신설 및 기능 강화**

○ 글로벌사우스 지역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**수출지원기관**(KOTRA, 무협, 무보) **해외 거점 14개소 신설·강화**(신설: 5개, 기능 강화 9개 검토)

<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기관 강화방안(안)>



<신설 : 5개>

○ (**KOTRA**) 멕시코, 조지아
○ (**무역협회**) 브라질, 남아공, 베트남

<기능 강화 : 9개>

○ (**KOTRA**) 기존 3개 무역관 이전 검토
○ (**무보***) 호치민, 하노이, 인도, 인니, 튀르키예, 브라질

* 旣 운영중인 해외지사 인력 재배치

2 글로벌 사우스 무역보험 55조원 공급('24년 48조원)

□ 新 **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· 상한 확대, 서비스 할인**

○ 글로벌 사우스 **우량수입자** 대상 기업별 **단기보험 한도 3배** 확대

○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개도국 특성을 고려하여, **저신용 수입자** 대상 거래시에도 **보험한도 상한 상향**(20→50만불)

○ 신규 바이어에 신용조사 前 제공하는 **잠정한도* 상한 증액**(20→30만불)

* 잠정한도: 신규 바이어에 수출시, 수입자 신용조사 및 보상한도 책정 전 제공하는 보험한도

○ 신규시장 개척에 필요한 **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** 비용을 **중소·중견기업** 대상으로 **50% 할인** 제공(연10회)

□ **'재건 사업' 연계 신규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**

○ **재건수요 선점**을 위해 **우크라이나** 등 지역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한시적으로 **수출보험 특별지원**(~'25.6월)

* (현행) 무역보험 인수제한국 지정 → (변경) 무역보험 특례인수위원회 심사 통해 지원

3 지역별 맞춤형 시장 공략

◇ [글로벌 사우스] 통상 협력 · 프로젝트 연계 수출기회 발굴

□ (아세안) 글로벌 무역분쟁 속 첨단산업 · 소비재 차세대 수출시장化

○ (첨단산업) 반도체·자동차·이차전지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선점

* 한-인니 경제협력위, 한-베트남 산업·FTA 공동위, 한-태 무역공동위 개최 등

○ (소비재) 한류를 활용한 맞춤형 K-푸드·뷰티·컨텐츠 수출 확대

* 소비재 전략사절단(3월, 베트남), 아세안 뷰티 사절단(상반기, 태국) 등

○ (인프라) ODA 활용 전력·건설기자재 분야 안정적 수출판로 구축

* 인니 전력 계량 인프라 보급/태양광 충전 시스템 구축,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등

□ (인도) 비관세장벽 대응 및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· 수주 지원

○ (비관세장벽 대응) 수입규제, 공급과잉 등 공동대응 협의체 신설('25.下)

* 인도는 對韓 수입규제조치 2위국으로, 25.2월 현재 23건(규제 중 17건, 신규조사 6건)

○ (개발 협력)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인프라 사업 발굴·연계

□ (중동) 新 산업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

○ (산업협력) 경제다각화 등을 기회로 ICT, 보건·의료, 스마트팜 등 수출 확대

* (沙) 전략파트너십위원회, (UAE) 산업/에너지파트너십, (카) 고위급협의회 등 개최

○ (플랜트) 원유·그린수소 개발, 태양광 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*

* 에너지 무역사절단(쿠웨이트, 1Q), 플랜트 수주지원단(사우디, 3Q), 신재쟁사절단(UAE, 4Q)

□ (중남미) 미주지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자원·방산 협력 확대 지원

○ (통상 대응)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기업 지원 긴급 대응체계 가동

* 멕 현지 공관·무역관과 상시 협력체계 가동, 무역관 내 헬프데스크 설치 등(멕시코 등 총 20개)

○ (자원·방산) 핵심광물(리튬 등) 프로젝트*, 방산(전투기·장갑차 등) 수출 지원**

* 한-칠레 자원협력위, 한-페루 핵심광물협력 MOU 후속사업 발굴, 한-브라질 TIPF 위원회

** 페루, 멕시코 중남미 방산사절단 및 홍보관 참가(4월)

◇ [선진 시장] 내수 공략, 정책수요 대응 통한 안정적 수출 유지

□ [일본] 오사카 엑스포 · 한류 붐 활용, 디지털 전환 수요대응

○ (소비재) 오사카 엑스포 계기 **프리미엄 이미지 홍보** 강화

- 訪日 **관광객 타겟 마케팅** 확대, **현지 유통망 발굴·입점** 지원

* 日 돈키호테 방한 한류제품 조달상담회(서울, 3월), 日 홈쇼핑 입점상담회(서울, 3월), 日 온-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소비재 무역사절단(후쿠오카, 3월), 한국우수상품전(오사카, 5월) 등

○ (디지털전환) 日 정부 **제조업·물류 디지털 전환 투자** 연계 수출 확대

- 日 제조업계 설비 노후화, 인력부족, 생산성 타개 위한 DX 전환 사업에 日 **제조기업-韓 ICT 기업간 대규모 비즈니스 매칭 지원**

□ [EU] 에너지 분야 진출 지원, 주력산업 공급망 다변화 정책 활용

○ (에너지) **무탄소에너지** 분야 **인프라·기자재 등 해외진출** 적극 지원

* 동유럽 원전 기자재 진출 상담회(프라하[5월], 부쿠레슈티[6월], 소피아[하반기]), Wind Europe (코펜하겐, 4월), 이탈리아 ESS 프로젝트 상담회(2월), 스위스 전력기자재 상담회(11월)

○ (공급망) **자동차·반도체·항공** 등 첨단·주력산업 **환경·기술 규제** 대응 지원

* 예: EU CBAM 헬프데스크(한국생산기술연구원) 운영을 통해 기업상담 진행

□ [중국] 세대별 맞춤형 소비재 마케팅, 안정적 수출 환경 구축

○ (소비재) **新 소비 주도세대**(실버·중년여성·Z세대) 맞춤형 마케팅 지원

- **제약·의료기기, 의·미용** 산업 **GP사업, 뷰티 전시회, 편의점 입점** 지원 등을 통해 'K-라이프 스타일' 확산을 수출로 연결

* Medical Korea(광저우, 4월), 샹위메디컬 재활의료기기 GP사업(정저우, 11월)
** K-뷰티 비즈니스 살롱(상하이, 5월), 코스모포르프 뷰티전시회(홍콩, 11월)

○ (기업 환경) 정부간 **다층적 협력 채널** 가동, 수출·통관·공급망 등 **예측 가능한** 비즈니스 환경 지원

* (중앙) 투자협력위(장관급), 산업장관회의(장관급), 공급망핫라인(국장급), 수출통제대화(국장급)
* (지방) 산둥, 광둥, 장쑤 등 중국 내 3대 경제 대성과 매년 교류회 + 랴오닝성, 푸젠성 등 협력

4 수출기업 애로해소

1 역대 최대 마케팅 1.2조원 지원, 상반기 70% 집행

□ **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바이어 대면 기회 대폭 확대**

○ (전시·상담회) 상반기 중 **역대 최대 144회, 수출기업 8,000개사** 지원

* 상반기 전시상담회 규모: ('24) 123회 / 7,123개사 → ('25) 144회 / 8,000개사

○ (무역사절단) 지자체·업종별 협회와 협업하여 국내 기업의 **신흥시장 파견 규모를 대폭 확대**(193→300개사)하고, **상반기 집중 지원**

* 글로벌 사우스 무역사절단 참여기업: ('24.上) 108개사 → ('25.上) 180개사

□ **한류, 공급망 재편 등 메가 트렌드와 연계한 신규수출 기회 발굴**

○ (오사카엑스포) 한국의 날('25.5월) 전후 **우수상품전, 무역사절단** 등 수출행사와 **K-POP콘서트, 관광페스타 등 한류 행사** 집중 운영

* 총 2,820만명 참관객 집객 예상, 약 2.9조엔 규모 경제적 효과 예상(日 경제산업성)

○ (한류 박람회) 카자흐스탄, 캄보디아 등 **한류 확산시장을 중심으로 K-POP 콘서트 연계 판촉·상담회**를 통해 신규 판로개척 지원

○ (글로벌 파트너링) 자동차, 조선·해양, 기계·장비 등 **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업종**을 중심으로 **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릴레이 상담회** 운영

* 日 조선기자재 파트너링(5월), 인도 미래자동차 파트너링(6월), 멕시코 기계장비 플라자(6월) 등

□ **해외수출지원기관 전략산업 수출 · 수주 프로젝트 발굴**

○ (KOTRA 무역관) **반도체·AI, K-그리드, 바이오, 항공·방산, 조선·해양** 등 7대 분야 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, **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** (~3월)

* 전시회, 컨퍼런스, 경제협력 등 계기 거점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 소싱 수요 발굴

< **수출 프로젝트 및 지원(예시)** >

❶ (바이오) 글로벌제약사 제품개발 협력수요 발굴, 핀포인트 상담, 현지인증 획득 지원

❷ (모빌리티) 글로벌 전기차 OEM 및 부품사 소싱 수요 포착, 방한초청 및 맞춤형 상담회 개최

❸ (K-그리드) 노후전력망 교체수요 대응, 데이터센터 확충 프로젝트 발굴, 선단형 사절단 파견

- 발굴된 수출 프로젝트별로 업종별 협·단체를 통해 **국내기업 매칭**, 마케팅·바이어 네트워킹·**계약체결까지 밀착 지원** 추진

< 전략산업별 거점 무역관(안) >

① **반도체·AI** - (미국)실리콘밸리, (인도)뉴델리
② **K-그리드** - (베트남)호치민, (일본)오사카
③ **바이오** - (미국)뉴욕, (독일) 프랑크푸르트
④ **항공방산** - (미국)시애틀·달라스, (브라질)상파울루
⑤ **조선·해양** - (싱가포르)싱가포르
⑥ **소비재** - (베트남)호치민
⑦ **모빌리티** - (미국)디트로이트

○ (**무역보험공사**) **플랜트·방산·원전** 수주 유망국, 공급망·핵심광물 협력국 등 중심으로 무역보험공사 해외지사 **수출지원 기능 강화 추진**

- 무보 해외지사 기능을 (現) 채권 추심 → (改) **현지 수출금융 지원**까지 확대하여 **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출금융**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

* 현재 운영중인 해외지사·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화 및 재배치 추진

2 '물류 · 인증 · 특허 · 판로개척' 지원 확대

◇ [물류] 대체시장 수출물류 선제적 · 적극적 대응

□ 대체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

○ (**노선확대**) 유망 대체 시장 중 서남아, 중남미 등 **선박이 부족한 노선**에 물류 경색 발생시 **임시선박 투입** 해수부

○ (**지원체계**) 국내외 **물류 전담조직** 신설로 물류 관련 기능 강화

- (국내) **KOTRA 물류 지원단** 구성, (해외) 신흥·유망시장 물류 요충지 무역관*에 **K-물류데스크 설치**로 실시간 모니터링·상담·지원

* (동남아) 싱가포르, (중동) 두바이, (인도) 첸나이, (멕시코) 멕시코시티

□ 중소 · 중견기업 대상 안정적 물류환경 제공 및 지원 강화

○ (**자금지원**) 통상 환경으로 인한 물류비 급등시 해운·항공운임, 보험료, 국제복합운송료 지원하는 '**물류바우처**' **신설**(KOTRA)

○ (**선복지원**) 선복 확보에 애로를 겪는 **중소화주 컨테이너 화물 공동 선복 제공 확대** 및 **운임 할인**(시가 대비 80~85%)

○ (**창고제공**)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현지 물류사 창고를 공유하는 '**해외공동물류센터**' **확충**(283→300개)

◇ [인증 · 특허] 수출 비관세장벽 극복,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지원

□ 新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부담 완화, 인프라 확충

○ (상호협약) 해외인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 기관과의 상호협약을 210건으로 확대('24년 200건)[국표원]

* 베트남(완구), 인도네시아(화장품, 생활용품), 바레인(에너지효율) 등

○ (비용)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('25년 153억원)[중기부]

○ (인프라) '해외인증 119(해외인증지원단 內 긴급지원반)'를 통해 유망기업 발굴→전문가 1:1 매칭→해외인증 조기획득→수출까지 全주기 지원[국표원]

- 인도 등 기술규제 확대국가에는 TBT 컨설팅 대응거점 신설

* (현재) 중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 → (추가) 인도(신설), 중국(확대, 1→2개소)

□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

○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 분쟁요인 사전 분석부터, 위험요소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(26.3억원)[특허청]

* 정부의 수출판로 지원을 받은 내수·수출초보(전년 수출 10만불 미만) 기업 등 100개社

◇ [판로개척] 중소 · 중견 지원 수출전문인력 확충, 온라인 수출 지원

□ 수출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 · 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

○ (국내) 수출업무 대행 전문무역상사 50개社 추가 지정 (601→650개)

○ (해외) 해외지사 설치 여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 현지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글로벌사우스 지사화 운영 확대 (지원기업 1,438→1,725개)

□ 新시장 개척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

○ (온라인 수출) 내수·초보기업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(1,017→ 1,600개사), 온라인 사절단 규모 대폭 확대 (8國 147개사 → 20國 350개사)

○ (지원기관 확대) 디지털 컨텐츠 제작, 온라인 유통망 입점, 수출계약 등 온라인 거래 지원하는 「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」 5개소 신설

* ('24년) 15개소 → ('25년) 20개소(인천, 수원, 대구 등 5개 추가) → ('27년) 30개소

□ 해외 수출 · 수주를 위한 행정지원 개선

○ 정부 문서의 영문 발급*지원 등 관련 법제 정비 신속 추진

* 예 : (現) 정부 발급 문서(국문)을 기업이 직접 영문 번역 및 공증
→ (개선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'신기술 지정 증서' 등의 영문 양식 신설

3 주력·유망·전략산업 지원 강화

◇ [주력산업] 7대 무역환경 영향업종 Pin-Point 지원

□ **[반도체]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, AI 열풍을 기회로 시장 다변화 추진**

○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**통상 리스크 대응**을 위한 **민관합동 지원체계*** 구축

*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전문 컨설팅 제공(무역안보관리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)

○ **'한·미 AI 반도체 혁신센터**(산호세, '24.9월 설립)'를 통한 **반도체 협력강화**

○ **빅테크 기업 투자계획**에 맞춰 **글로벌 사우스**로 **수출시장 다변화**

* 구글 사우디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등

○ **반도체 Chip** 등에 대한 **한국제품 구매조건부 자금대출 장기보증** 도입('25.上)

* (기존) 개별 수출건마다 보증 → (변경) 물품구매자금을 Term Loan화하여 보증

○ **반도체 수출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보세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**연구·시험용 물품**의 **반출입 절차 간소화** 관세청

* 현재 공장과 연구부서간 제품이동이 빈번함에도 일일이 통관·세제환급 절차 반복 중

□ **[자동차·부품] 신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 본격 추진**

○ ASEAN 중심으로 **전기차 기술협력 센터**(인니:'25년) 등 **산업협력** 확산*

* 인도네시아에 구축된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필리핀에도 확산 구축

- 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확대

> 현장의 목소리 **자동차부품조합 : 일본 완성차社 및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점유한 ASEAN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및 현지 OEM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요청**

○ **중형 목적기반차량***(PBV) 국내 최초 출시 및 **유럽** 등 수출 본격 추진

* Purpose Built Vehicle로 개별 수요자의 사용 목적에 제작되는 고객 맞춤형 차량

○ 美 **현지 기업, 유사 입장국**과 **소통**하며 對美 **아웃리치** 추진

* 투자지역 주지사,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, 일, 독, 멕 등 국가 협회와 소통채널 구축

□ **[이차전지]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새로운 수요 창출 중점 추진**

○ IRA 축소·폐지 가능성 대비 우리 투자지역 중심 **아웃리치** 전개

* **(아웃리치 사절단)** 정부-기업-협·단체, **(메시지)** ①IRA 관련 투자(558억불, 2.9만명 직접고용)는 대부분 공화당 州가 수혜, ②한국의 배터리 투자가 미국내 산업생태계 신규 조성 및 경제안보에 기여

○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**ESS·사용후 배터리 등 신수요 창출** 지원

* 배터리 GP사업 확대,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 및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

□ **[바이오헬스] 의약품 최대시장 진출 집중 지원**

○ **국내·외 전시회** 계기 **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** 중점 지원

* 바이오 USA 한국관 운영(KOTRA·한국바이오협회), 한-미 라운드 테이블 등

○ 美 **시장진출 교두보 마련**을 위한 보스턴 **CIC* 입주 지원**(30개사)복지부

* Cambridge Innovation Center :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연계 공유오피스로 글로벌 제약기업·투자회사 등 상시 교류 협력의 장

□ **[철강] 글로벌 수입규제 총력 대응**

○ 美 **관세조치** 강화 기조, **인도 세이프가드** 도입 검토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**민-관 합동 대응체계*** 구축·운영

*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」 출범 ('25.1월, 민관 공동위원장)

○ 美 **무역확장법 232조** 관세 관련, 재외공관 등 **가용한 대미소통 채널**을 **총력 가동**하여 **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** 추진*

* 2.17일주 고위급 訪美를 통한 우리 입장 전달 등 아웃리치 전개

□ **[조선] 신규 수요 선점 및 수주금융 지원 강화**

○ 美 함정 MRO 확대 및 美 조선소 생산성 개선 등 **한·미 조선협력** 패키지 추진

○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해 RG 발급 적극 지원금융위

* 재무건전성 등 신용등급 외에도 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발급 심사

□ **[가전] 통상피해기업 국내 복귀 인센티브 강화**

○ (가전) 통상피해 입증시, **유턴보조금 선정요건 완화** 및 **보조금 지원 확대**

> 현장의 목소리 **가전업계 : S사는 관세 영향으로 멕시코 생산 중인 미국向 프리미엄 물량을 국내 사업장 등으로 재배치 검토 중이나, 국내 물량 이전시 물류비용 등 부담 증가 예상**

◇ (유망산업) K-푸드, K-콘텐츠 등 新 수출동력화

□ (농식품) 국내외 수출인프라 구축 및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

○ 국산 신품종 신선농산물 계약재배* 및 수출전문단지** 육성

* 4개 품목(딸기, 포도, 파프리카, 배) ** 스마트팜 활용 생육 모니터링·안전관리 강화

○ 농식품 주력시장(미·중·일) 내 2선 도시 본격 진출, 新시장(중남미·아프리카) 중심으로 해외무역관*과 연계한 수출 거점 확대

* 칠레, 남아공 등 5개국에 코트라 협업 농식품 중점무역관 신규 운영

○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*, 농기자재 맞춤형 판로개척** 등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

* (기조성) 카자흐, 베트남, 호주 → ('25) 사우디 준공, 캐나다 착공

** 로드쇼 확대(3개국 → 5), 박람회 확대(5회→ 8),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(신규)

□ (수산식품) 신규시장 개척 및 비관세 대응 강화 해수부

○ 해외무역지원센터를 남미·중동 등 다변화, 유럽지역 박람회 2배 확대(3→6회)

○ 미국 등 수출국 요구* 대응을 위한 비관세장벽 플랫폼 운영('25.5~)

- 對美 수산식품 수출 이력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

* 美 신정부의 해양환경·식품안전 등 수산식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강화 전망

□ (콘텐츠) 해외진출 금융·마케팅 집중 지원 문체부·산업부

○ 콘텐츠 기업 대상 수출이행·해외진출 자금 대출 보증상품 신설(150억원)

*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('25.4월 시행)으로 문화산업보증계정 위탁기관에 무보 추가

○ 상설전시-홍보-컨설팅이 가능한 해외홍보관 'KOREA360*' 운영

* 두바이, 인니 등 한류 콘텐츠·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중심으로 운영

○ 애니메이션 현지어(자막·더빙, 아프리카·중남미 등) 및 네트워킹(중화권) 지원

* 중국 항저우애니메이션 페스티벌(CICAF), 싱가포르 아시아TV포럼&마켓(ATF) 등 마켓 참여

□ (ICT서비스) 실증 및 기업간 협업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 과기정통부

○ 국내 유망 AI·디지털 스타트업 대상 美 동부 진출거점* 신설·운영

* 뉴욕대 내 지원공간 마련, 인프라 외 네트워킹·투자유치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(20개사)

○ 기업간 협업 기반의 팀시큐리티 코리아(가칭)* 지원

* 기업 주도로 통합보안 모델 개발, 정부는 협업 애로해소와 판로·투자·해외진출 지원

◇ [전략산업] 원전 · 방산 ·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

□ [원전]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 추진, 설비·생태계 맞춤형 수출·수주

○ UAE, 튀르키예 등 **잠재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 채널** 구축

○ 시공, 운영·정비, 연료 등 **원전 全 주기 수출 다각화**를 위해 **전략 시장***을 **선정, 시장 분석·네트워크** 구축 등 추진

* 예시 : (동유럽) 노후 원전 유지·보수, (중동) 후속주기 연료, (서유럽) SMR 등

□ [방산] 수주 금융지원 확대 및 민군협력 활성화 국방부·산업부·기재부·방사청

○ **발주국** 대상 **수출금융** 제공 및 중소·중견 **'벤더수출금융'** 신규 도입*

*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 실적 확인이 어려운 협력사도 납품실적에 근거하여 우대 지원

○ **첨단 민군협의체 가동** 및 해외 의존도 높은 **핵심소재 자립화 지원***

*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공정기술 예타 및 민군융합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신규 추진

○ **정비용 수리부품**에 대한 **수출허가 면제***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

* 旣수출 무기체계에 대해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품 구매시 면제적용 검토 중

○ 항공 MRO 산업 육성 위해 **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**(~'25) 추진

* Maintenance(정비), Repair(수리), Overhaul(분해조립)

□ [해외건설·플랜트]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및 금융지원 확대 국토부·산업부

○ **다자·양자 고위급 교류 계기** 수주 유망 프로젝트 지원 활동 전개

* (중동) 사우디(플랜트, 도시개발), 이라크(재건사업), UAE(플랜트, 고속철도), 카타르(플랜트)
(아세안) 베트남(발전, 신도시, 산단), 말레이(공항, Oil&Gas), 인니(석유화학) 등

○ 수은 **9조원 대출**, 무보 **10조원 보증**, KIND **정책펀드 1.1조원** 등 총 **20조원** 지원

□ [녹색산업] '사업발굴~수주·협상~재정투자' 전주기 지원 환경부

○ **(사업발굴)** 해외 환경프로젝트 **타당성조사**(100억원), **현지실증**(78억원)

○ **(수주·협상)** **수주지원단** 파견, 주요 **바이어·발주처 초청**(100개 사, 6월) 지원

○ **(재정투자)** '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펀드*(5,000억원, '24~'28)' 조성·투자

* 1호펀드(1,580억원) 조성 완료('24.10월), 2호펀드(2,500억원, '25.6월) 등

V. 향후 추진계획

정책 과제	소관부처	추진 시기
1. 관세 피해 긴급 대응		
▶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	산업부	'25.2~
▶ 美 관세피해 대상 수출보험 우대 제공	산업부	~'25.6
▶ 美 관세 대응 위한 해외투자 자금 지원 강화	산업부	연중
▶ 관세피해 U-턴 기업 특별지원	기재부/산업부	~'26년
▶ 관세애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	산업부	'25.2~
2.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		
▶ 무역금융 366조원, 중소·중견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	산업부/기재부 중기부/금융위	연중
▶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무보 보험료·보증료 50% 할인, 100만불 이하 수출중소기업 보험료 90% 특별할인	산업부	~'25.6
▶ 과거 수출 실적 낮은 중소기업 대상 특례 강화	산업부	'25.3~
▶ 핵심 원자재 수입 대상품목 확대 / 보증한도 2배 상향	산업부	'25.2~/~'25.6
▶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 신설	산업부	'25.上
▶ 환변동보험 한도 우대, 보험료 할인	산업부	~'25.6
▶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	중기부	연중
▶ 시중은행 협력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공급	산업부	연중
▶ 지방은행·인터넷은행 협력 상품 신설	산업부	'25.4~
▶ 협력사 대상 수출공급망보증 상품 신설	산업부	'25.5~
▶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 금리우대 상생금융 지원	기재부	연중
3. 글로벌 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		
▶ 글로벌 사우스 수출지원거점 신설·기능 강화	산업부	'25.上
▶ 新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·상한 확대, 신용조사 서비스 할인	산업부	'25.3~
▶ 재건 사업 연계 신규 수출 위한 무역보험 지원	산업부	~'25.6
4. 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		
▶ 역대 최대 마케팅 1.2조원 지원, 상반기 70% 집행	산업부, 관계부처	연중
▶ 전략산업 수출·수주 프로젝트 발굴	산업부	'25.上
▶ KOTRA 물류지원단 구성, K-물류데스크 설치	산업부	'25.1~
▶ 물류바우처 신설,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	산업부	'25.1~
▶ 중소화주 컨테이너 화물 공동선복 제공 확대·운임 할인	산업부/해수부	연중
▶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	중기부	연중
▶ 전문무역상사 50개사 추가, 무역관 지사화 운영 확대	산업부	'25년
▶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5개소 신설	산업부	'25년
▶ 반도체 보세공장-연구부서 간 연구 물품 등 반출입 절차 간소화	관세청	'25.上